단편영화 시나리오

삼각 김밥 관계

쓴 사람
카톡Id : brainzzz

우리가 지겹도록 본 그 '삼각관계'!?

No!
이건,
그냥 삼각관계가 아니라
'삼각김밥 관계'
편의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 먹어 보았을,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 그 삼각김밥!
지금부터 맛있는 '삼각김밥 관계'가 벌어집니다!

<로그라인>

배도 고프고 사랑도 고픈 이 시대 청춘남녀들의 이야기를 삼각김밥으로 감칠맛 나게 보여줍니다.

<특징>

삼각김밥을 소재로 하는 단편영화 시나리오

장소는 단 하나!
동네 편의점

나오는 사람은 단 세 명!
남자와 여자, 그리고 편의점 알바

편의점 숫자가 전국적으로 4만 개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먹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진 편의점
그 편의점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세 사람의 심리를 삼각관계처럼 다룬다면?
'삼각김밥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나리오>

#1 편의점 안 / 오전

출근길 손님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편의점 내부...
진열된 상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혀 있다.
20대 초반의 편의점 남자 알바가 흐트러진 상품들을 정리하고 다닌다.

도시락 코너에서 걸음을 멈추는 알바,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가득 차야 할 진열대에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하나 남은 삼각김밥을 살펴보는 알바...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 보는데,
시곗바늘이 정확히 오전 9시 50분을 가리킨다.
삼각김밥을 제자리에 놓고 카운터로 향하는 알바.

잠시 후
편의점 출입문이 살며시 열리며
20대 초반에 청순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들어선다.
출입문에 매달린 종이 살짝 흔들리다 만다.

여자가 무언 가를 찾듯, 제자리서 고갤 여기저기 돌려본다.
그러다 카운터에 선 알바와 눈이 마주쳐 버리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는
얼른 자리를 떠서 직접 찾아 나선다.
느린 걸음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는 여자...

잠시 후
편의점 출입문이 힘차게 열리며
20대 초반의 남자 한 명이 급하게 뛰어 들어온다.
덩달아 출입문에 매달린 종이 요란한 소릴 내며 요동친다.

남자는 목적이 분명한 듯,
한 곳을 향해 뛰어간다.

한편
도시락 코너에서 걸음을 멈춘 여자,
하나 남은 삼각김밥을 발견하고 금세 얼굴이 밝아진다.
여자가 하나 남은 삼각김밥을 막 집으려는데

삼각김밥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오는 남자!
하나 남은 삼각김밥을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시에 집는 장면이 슬로우로 연출되고...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순간 얼음이 돼버린다!
그것도 잠시,
놀란 여자가 삼각김밥에서 얼른 손을 뗀다.
남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고,
어색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
카운터에 있는 알바가 두 사람을 유심히 쳐다본다.

남자: (당황해서) 어!? 이거 어떡하지? (난처한) 김밥이 하나밖에 없네...
여자: (어쩔 줄 모르는) ...
남자: (여자에게 삼각김밥 건네며) 먼저 가져가세요.
여자: (당황해서) 예에? 아니에요...
남자: 예? 왜요?
여자: (부끄럽게) 먼저 집으셨잖아요.
남자: 예? (머리 긁적이며) 거의 같이 집은 것 같은데...
여자: 전, 그냥 다른 거 고를게요....

여자가 주위를 살펴보지만 딱히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남자: (삼각김밥 보며, 여자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이제 보니, 참치마요네즈였네!?
여자: (모른 척 듣고 있는)
남자: 아! 난, 이 맛 별론데... (여자 향해) 혹시 참치마요네즈 좋아하세요?
여자: (듣다가 놀라서 남자보는) 네에?
남자: 저는 참치마요네즈 잘 못 먹거든요.
여자: ...
남자: 괜찮으시면... (삼각김밥 건네며) 받으세요.
여자: (어쩌지... 속으로 갈등하는)

카운터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편의점 알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시곗바늘이 9시 59분을 지나 10시를 향해 간다.
두 사람과 시계를 번갈아 보는 알바,
이상하게 초조해 보인다.
그러다 시곗바늘이 정확히 10시를 가리키고,
시계를 확인한 알바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두 사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삼각김밥을 사이에 두고 서 있다...

남자: (삼각김밥 건네며) 자요, 누가 가져가기 전에...

갈등하던 여자는 남자가 건네는 삼각김밥을 받기로 마음먹는다.

여자: (쑥스럽게 받는) 그럼...

남자가 건네는 삼각김밥을 여자가 막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알바가 두 사람 사이에서 삼각김밥을 낚아챈다!
동시에 깜짝 놀라는 남자와 여자!

알바: 죄송합니다...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해 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알바: 이 삼각김밥은 판매기한이 지나서요.

삼각김밥 뒷면에 붙은 스티커를 보여주는 알바,
유통 기한이 오늘, 오전 10시 까지다.

바로 이어서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키는 알바,
두 사람이 시계를 보면,
시곗바늘이 10시 1분을 막 지난다.

알바: 그럼, 이 삼각김밥은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삼각김밥을 들고 그대로 카운터로 사라지는 알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마주보는 남자와 여자...

#2 편의점 밖 / 오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

남자: 황당하네요.
여자: ...
남자: 우리말이에요.
여자: 네에?
남자: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삼각김밥 하나 두고, 우리 뭐 한 거죠?
여자: (풉하고 웃으며) 그러게요.
남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고백 해야겠네요...
여자: (고백이라는 말에 심쿵하는) !
남자: (멋쩍게 웃으며) 실은, 아까 그 참치마요네즈 말이에요.
여자: ?

남자: 사실... 저, 그 맛 엄청 좋아해요...
여자: (놀라며) 진짜요?
남자: 진짜요!

동시에 환하게 웃는 남자와 여자...

남자: 저쪽에 편의점 하나 더 있거든요. 같이 가요.
여자: (수줍게 따라나서는) 네에...
남자: 이번에도 삼각김밥 한 개만 있진 않겠죠!?
여자: 설마요.
남자: 근데, 그거 아세요?
여자: (남자의 말에 관심 보여주는)
남자: (신나서) 왜, 삼각김밥 먹을 때 그 포장을 잘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동작 해가며) 막 아무렇게나 뜯다가 삼각김밥 터져서 주먹밥 되고...
여자: (까르르 웃어주는)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으며 걸어가는 남자와 여자...

편의점 안 인서트
카운터에서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을 주시하는 알바...
삼각김밥 뒷면에 붙은 유통기한 스티커를 만지작거리더니,
스티커를 천천히 떼어내고,
삼각김밥 포장지를 정석대로 하나씩 벗겨 나간다.
마치 '삼각김밥은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보여주듯이.
벗겨지는 포장 사이로 삼각김밥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마침내 번들번들한 삼각김밥의 전신이 온전하게 화면에 잡힌다.
참았던 군침을 삼키는 알바,
바로 먹방에 들어간다.
입을 크게 벌리고,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을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어치운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폐기처분 되간다...#

이 시대 청춘남녀들을 상징하는 세 사람,
남자, 여자, 알바의 얼굴이 아름답고도 서글프게 교차된다.

▲